



K-바이오 랩허브 조감도.

/인천경제청

인천경제청, 하반기 'K-바이오 랩허브' 착공

행정절차 마무리... 2028년 준공 목표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 7공구에 추진 중인 K-바이오 랩허브 건립사업이 올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2028년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부지에 총건축비 930억 원으로 국가 바이오 창업지원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연구장비 구입비용은 국비로, 건축비는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 부담하고, 부지는 연세대학교 무상제공 방식으로 추진되며, 2028년 말 준공이 목표다.

본 사업은 타당성 조사와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등 필수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이 확보된

에 따라 본격적인 착공 준비 중이다.

이울러 중기부, 인천경제청, 연세대학교,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간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사업이 매우 안정적으로 추진 중이며 운영체계 역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단에서 지역 기반의 운영 준비도 강화되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을 통해 선정된 바이오 스타트업기업들은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내 임시공간에서 연구·창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향후 랩허브 준공 시 단계적으로 입주 및 연구 장비 활용지원과 아울러 유세포 분리기 등 첨단 연구장비 구축과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준비도 병행 추진 중이다.

/인천=이숙영 기자 sy1321@

서울시교육청, 학부모 정책제안 듣는다

서울시교육청이 학부모가 직접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공론장을 11개 교육지원청에서 순차적으로 연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 북부교육지원청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서울교육+플러스 교육지원청 학부모공론장'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론장은 서울교육 학부모동행단을 중심으로 11개 교육지원청별로 한 차

씩 열린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100~150여 명의 학부모가 참여해 지역 교육 현안을 두고 토론한다. 공론장은 전문가 발제, 원탁 토론, 토론 결과 공유, 교육감과의 질의응답 등으로 120분 이상 운영된다.

올해 첫 공론장은 29일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주관으로 고려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린다.

/이현진 기자

파주시, '올곡 코드' 운영

파주시가 오는 10월까지 파주 이이 유적에서 올곡 이이와 신사임당의 삶을 교육·문화 콘텐츠로 풀어낸 '올곡 코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가유산청이 공모한 '2026년 향교·서원 국가유산 활용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파주시는 역사적 인물의 삶과 가르침을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요리, 맛글씨, 공연, 모바일 임무 수행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참가 신청과 세부 일정은 한국문화유산연구센터 또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경)=안정기 기자 ask9990@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13 | 해질 / 19:57

6월 29일 (월) 음력: 5월 15일

수도권 날씨 21 ~ 32°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연천 19/31, 동두천 19/31, 가평 18/31, 양평 20/31, 용인 20/31, 평택 19/31, 파주 19/31, 서울 21/32, 수원 20/31, 인천 20/29, 백령도 19/25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의대 수시 '1등급' 경쟁 현실화 합격·탈락 예측 더 어려워진다

종로학원 2026학년도 입시 분석 31개 대학 합격선 1등급 초반대 5등급 전환시 변별력 약화 우려

2026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이 5등급제로 전환되면 의대 수시전형에서 전과목 1등급을 받고도 합격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6학년도 전국 의대 일반전형 최종등록자 70%컷을 분석한 결과,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 중 31개 대학의 합격선이 1.45등급 이내였다고 28일 밝혔다. 이 가운데 6개 대학은 1.0등급이었다. 이번 분석은 고른기회 등 특별전형을 제외한 일반전형 기준이다.

2026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가운데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점수를 공개한 대학은 32개교로, 이 가운데 연세대, 가톨릭대, 울산대, 경희대, 인하대, 아주대 등 6개 대학은 최종등록자 70%컷이 1.0등급이었다. 공개 대학 기준 18.8%다. 이는

최종등록자 70% 지점까지 합격권이 내신 1.0등급 수준에서 형성됐다는 뜻으로, 종로학원은 현행 9등급 체제에서도 이들 대학은 내신 등급만으로 변별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은 대부분 1등급대 초반에 몰려 있었다. 구간별로는 1.02~1.09등급 5개교, 1.11~1.15등급 7개교, 1.16~1.19등급 4개교, 1.20~1.28등급 4개교, 1.30~1.45등급 5개교였고, 1.45등급을 벗어난 대학은 1.53등급 1개교에 그쳤다.

종로학원은 현행 9등급제에서 1.45등급 이내 성적은 2028학년도 5등급제 전환 이후 전과목 1등급으로 묶일 수 있는 구간으로 봤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선을 공개한 의대 32개교 중 31개교에서 전과목 1등급으로 묶이는 지원자 간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학생부종합전형도 합격선이 내신 최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합격 점수를 공개한 32개 대학 중 1.05~1.07등급은 2개교, 1.10~1.14등급은 3개교, 1.15~1.17

등급은 4개교, 1.22~1.29등급은 6개교, 1.30~1.45등급은 5개교였다. 1.45등급 이내 대학은 모두 20개교로, 공개 대학의 62.5%다.

학생부종합전형은 교과 성적 외에도 학생부 기록과 면접, 서류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다만 합격권 내신이 1등급대에 집중된 만큼 5등급제 전환 이후에는 내신 등급만으로 지원자를 구분하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류와 면접 등 대학별 평가 요소의 영향이 커지고, 수험생 입장에서는 전과목 1등급을 받고도 합격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5등급제 전환 이후 의대 수시에서는 전과목 1등급 동점자가 대량 발생할 수 있다"며 "내신 최고등급을 받고도 입시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수험생 입장에서는 합격과 탈락 원인을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입시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metro

서울시, 'G3 서울 기획위원회' 본격 활동

민선 9기 시정 운영계획 마련 김병민·이창무 공동위원장 체제

서울시가 민선9기 시정 운영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G3 서울 기획위원회'를 출범한다. 위원회는 약 70일간 주거, 교통, 청년, 균형발전 등 주요 정책과제를 논의한 뒤 오는 9월 'G3 서울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G3 서울 기획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G3 서울플랜'은 민선9기 서울시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담은 종합계획이다. 'Global Top 3 도시'를 뜻하는 G3를 내걸고, 향후 4년간 추진할 전략목표와 핵심과제, 실행계획을 담는다.

위원회는 서울시의 미래 비전과 성장



서울시청 전경.

전략을 구체화하고 분야별 정책과제를 발굴·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논의된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과 제도로 연결해 'G3 서울플랜'에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동위원장은 김병민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맡는다. 김 전 부시장은 시정 운영 경험을, 이 교수는 도시정책 전문성을 바

탕으로 위원회 논의를 조정한다.

위원회에는 민간위원 약 95명이 참여한다. 운영 체계는 7개 분야별 분과와 3개 특별분과 등 총 10개 분과로 구성된다.

7개 분야별 분과는 ▲건강활력도시 ▲주거안정도시 ▲교통혁신도시 ▲미래경제도시 ▲동행성장도시 ▲글로벌매력도시 ▲안전환경도시다. 각 분과는 분야별 정책목표와 핵심과제, 실행방안을 논의한다.

3개 특별분과는 ▲비전총괄분과 ▲청년특별분과 ▲균형발전특별분과로 운영된다. 비전총괄분과는 전체 전략체계를 조정하고, 청년특별분과는 주거·일자리·AI·고급 해소 등 청년 관련 의제를 다룬다. 균형발전특별분과는 강남북 균형발전 관련 사업체계와 추진전략을 검토한다.

/이현진 기자

대교협, 내달 '수시 대학입정보 박람회' 개최

서울 코엑스에서 23일부터 25일까지

수시모집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대학별 전형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입 박람회가 열린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오는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2027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

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주요 150개 대학이 참여해 수시모집 전형 정보와 상담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대입상담교사단이 참여하는 '1대1 대입 대면 상담관'도 운영된다. 학생들은 대학별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 상담교사에게 지원전략 등 구체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는 AI 기반 대화형 대입 챗봇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오는 6월 29일부터 챗봇 서비스를 대국민 대상으로 시범 개통한다.

학생과 학부모는 챗봇과의 대화를 통해 대학별 입학전형 운영 방법, 전형 일정, 입시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인 성적이나 관심 분야 등을 입력하면 대학, 학과, 전형 추천도 받을 수 있다.

/이현진 기자

메트로 한줄뉴스

- ▲호르무즈 통제권 갈등에 휴전 위태... 美 "국가 존속 못할 것"
- ▲이란 외무부 "美 공격은 휴전 합의 위반...침략에 맞서 주권·영토 보전할 것"



- ▲트럼프 "美 독립기념일, 워싱턴 상공 10시간 이상 에어쇼"
- ▲한국이 만든 페루 스마트도로 청사진, 페루 국가 법정계획 됐다

- ▲일본 이와테현서 규모 6.1 지진... "쓰나미 우려 없어"
- ▲국제수도경찰협의체 출범... 7개국 '초국가범죄 공동대응'